

자주하는 질문

체외충격파쇄석술로 오로결석을 다 제거할 수 있나요?

- 체외충격파쇄석술의 성공률은 결석의 위치, 크기, 성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80% 정도입니다. 시술 후 결석이 남으면 반복적인 시술을 할 수 있으며, 결석이 깨어지지 않거나 시술 후 남은 결석이 많은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체외충격파쇄석술 이후 소변에서 피가 나옵니다.

- 체외충격파쇄석술 후 소변에서 피가 보이는 것은 정상적인 증상입니다. 하지만 혈뇨가 며칠이 지나서도 계속 나오게 될 경우 병원에 방문 하시어 진찰 및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결석도 체외충격파쇄석술로 치료할 수 있나요?

- 크기가 크지 않은 신장결석도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큰 신장결석 (직경2 cm 이상, 사슴뿔 결석 등), 매우 단단한 결석 등은 체외충격파쇄석술 성공률이 떨어져 수술적 치료를 시행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결석의 신장 내에서 위치, 신장 물혹 등 구조적 이상 등으로 인해 성공률이 떨어지거나 시술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FAQ



체외충격파쇄석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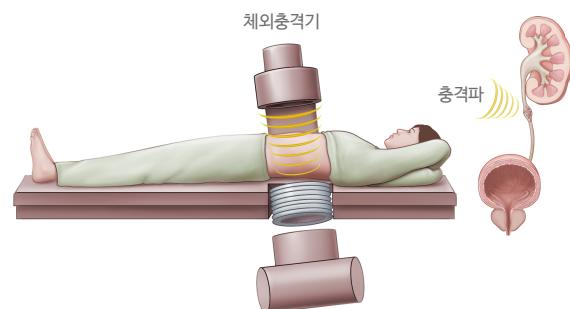
몸 밖 충격파 요로 돌캡슐

요로결석과 임상 증상

요로결석은 소변이 신장(콩팥)에서 만들어져서 몸 밖으로 배출되기 까지 소변이 나오는 경로, 즉 신장, 요관, 방광, 요도에 결석(돌)이 생겨 신체에 여러 가지 이상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요로결석에 의한 증상은 결석의 크기, 위치, 동반된 질환, 요로 막힘의 정도, 염증 등에 따라 다르나 대개 갑작스럽게 옆구리나 아랫배에 심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토하고 싶은 느낌이나 복부 팽만감 등 위장장애 증상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를 보이기도 합니다.

체외충격파쇄석술이란?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요로결석의 대표적인 치료법 중 하나로, 신장, 요관 등 요로에 생긴 결석을 체외에서 충격파를 써어 작은 파편으로 파쇄하여 소변과 함께 몸 밖으로 자연 배출시키는 방법입니다. 수술적 방법과 비교하여 입원 및 마취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부작용이 적어 소아나 노약자도 시술이 가능합니다.



체외충격파쇄석술 대상과 금기

체외충격파쇄석술은 모든 종류의 신장과 요관결석의 치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한 일부 방광결석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산부, 약물 치료로도 교정되지 않는 출혈질환, 대동맥류 환자에게는 시행할 수 없으며, 심장박동 조율기를 장치한 환자는 시술 전 가능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결석의 위치 및 크기, 결석의 성분에 따라 시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체외충격파쇄석술의 준비 및 과정

1. 요로결석의 위치와 크기 등을 확인하고 치료계획을 세웁니다. 환자의 기저질환, 복용 약물 등을 확인하고 항혈소판제제와 항혈액응고제 등은 시술 일주일 전부터 복용을 중단합니다.
2. 시술 전 요석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X선 촬영을 합니다.
3. 시술 전 필요에 따라 진통제를 미리 투여합니다.
4. 쇄석용 침상에 누워 충격파를 요석이 있는 부위를 향하여 쏘여 결석의 분쇄를 시행합니다. 시술 시 소음이 발생하여 필요한 경우 귀마개를 하고 시행합니다.
5. 시술시간은 약 30~60분 가량 걸립니다.

체외충격파쇄석술의 결과

체외충격파쇄석술 시술 후 영상학적 검사(X선 촬영, 초음파 검사, 컴퓨터단층촬영 등)로 결석 배출여부를 확인합니다. 결석의 위치, 크기, 성분에 따라 성공률은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1 cm 미만 결석은 90%, 1 cm 이상 결석은 75%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검사상 결석이 남아 있으면 재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체외충격파쇄석술 후 관리 및 합병증

시술 후 깨진 돌이 배출되면서 통증, 혈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며, 진통제 복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깨진 돌이 배출되는 과정에서 요관에 결리거나 신장 손상으로 인한 혈종으로 인해 심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발열 등 요로감염에 의한 증상이 발생할 경우 항생제 치료,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